

Session 06 우리의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빌 2:3-16) (Loving God with All Our Soul)

I.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품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A.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감성), 성품, 생각(지성)과 힘(자원)의 4가지 영역에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30)

30 그러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한글 KJV, 막 12:30)

- B. 이 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혼, 즉 우리의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것이다. 핵심은 우리의 겸손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사랑할 능력이 더 많아지게 하기도, 잃어버리게도 한다(엡 4:29-32; 5:4).

- C. 우리는 겸손 가운데 행하기로 하는 값비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겸손을 끌어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두신 무대와도 같다. 우리들 각자는 서로 다른 성품과 환경 속에 있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어려움들을 안고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숙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 D.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성품을 다해 사랑하시되, 그분의 겸손의 성품을 부으시며 사랑하신다(빌 2:6-8).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게 된다. 온유함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말한다. 이것은 사랑을 더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힘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온유함을 힘이 없는 연약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E.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온유함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겸손으로 풍성하게 웃으신다. 지극히 강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실 수 있는가?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 F. 성령님께서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도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드러남 없이

무대 뒤에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다. 그분은 겸손 안에서 행복한 분이시다.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3-14)

G. 천년왕국 마지막에 성취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그분의 겸손을 볼 수 있다.

24 그 후에는 마지막(천년왕국)이니 그(예수님)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28 만물을 그(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24-28)

H. 하나님의 겸손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난다. 사랑과 겸손은 동일한 것이다.

4 여호와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시 113:4-8)

II.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 예수님의 겸손

3 아무 일에도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한글 KJV,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KJV 흥정역 :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 2:3-9)

A.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이신 그분의 내려놓음(포기)인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겸손과 깊은 연관이 있다.

B.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는데, 이는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셨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구별되신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영원히 가지신다.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 (히 1:3)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 (골 1:15)

- C. 예수님께서서는 성육신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두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보다 못하셨던 적도 절대 없었지만, 인간 그 이상으로 살지도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자신의 신성을 지니고 계셨다.

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 (딤후 3:16)

- D.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유일한 특권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셨다.
- E.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특권을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6절). 그분은 성육신에서 요구되는 겸손을 자신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 찬 종이다. 여기서 그분은 자신의 특권을 부인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서의 참된 마음을 보이신 것이었다.
- F. 그분은 성육신을 불의한 치욕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고 영원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높이실 길을 만드셨다(계 3:21). 성육신을 통해 그분은 자신의 부(富)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 G.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성을 비우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땅에서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편재하심과 전지, 전능하심에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존하셨다.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 2:17)

- H.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두 가지 개별적 특성을 한 존재 안에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온 우주의 머리셨다. 그분은 영원히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의 말씀이시다(히 1:3; 골 1:17).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빌 2:7) 가난하게 되셨다(고후 8:9). 그분은 신성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셨고, 이를 시행하셨으며 이 주권의 모든 특권을 누리셨다. 그러나 그분은 고통과 좌절, 곤란함에 노출되어 계셨다.
- I. 하나님의 정체성의 중심은 겸손으로 표현되는 사랑에 있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중심은 그분의 권능이나 특별하심에 있지 않다. 사단은 이 부분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그 자신이 이것들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권능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중심이었다면, 성육신은 그분의 마음에 있던 것들이 부정하거나 탈퇴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우리 문화는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Session 06 우리의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빌 2:3-16)

- J. 예수님께서서는 거절과 고통, 굴욕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셨지만 이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변화산에서 보인 것과 같은 영광(마 17장)으로 오지 않으셨고, 이를 숨기셨다.
- K. 예수님께서 베풀고 섬기는 것을 추구하신 것은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사랑과 겸손이다. 그분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을 일로 보지 않으신다. 이는 신성한 그분 자신을 잘 드러내준다. 그분은 낮은 일을 겸손하신 하나님이신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신다. 섬김은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에 있다.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눅 6:35)

- L.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이는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랑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에 몰두한 사랑이다. 그분은 자신의 뛰어난에 몰두해있는 분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다.
- M. 예수님께서서는 계시록 5:12절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소유하고 계신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이미 부요하신 분이다.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 5:12)

- N.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다(KJV 흥정역,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그분은 종(*doulos*)으로 오심으로 수치와 불명예를 끌어안으셨다. 높임 받을 권리조차도 없는 종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 새로운 일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감추셨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인성의 장막 아래 감추셨다.
- O. 예수님께서서는 삶의 연약함, 거절, 떠돌아다님과 가난, 피곤함과 수치와 고통의 삶을 끌어안으셨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서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 P. 예수님께서서는 “백옥의 영광”(계 4:3)의 하나님으로서 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압도하기보다, 우리의 입장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직접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를 행하실 수 없었다.
- Q. 우리는 천성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미지에 신경을 쓰며, 우리의 좋은 부분들이 인식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들이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경시하는 자리를 받아들이신다. 그들이 그분을 봤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평범하셨다.

Session 06 우리의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빌 2:3-16)

- R.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끌어안으셨다(8절). 그분은 영원한 형상을 지니셨기에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셨다. 여기서 그분은 사망의 희생양이 되신다. 그분은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수치심이 부어지는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갈 3:10,13).
- S.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핵심적인 정의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은 그 정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대한 상급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분의 열정은 그분께 첫째 되는 일이다.

16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16-21)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 3:16)

- T. 예수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종으로 계셨다. 그분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던 어떤 존재로 변하지 않으신다.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3-17)

- U. 예수님께서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나,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오시는 때에도 그분은 모두 종으로 오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는 종의 섬김이다. 예수님께서서 재림하셔서 돌아오시는 것은 모두 사랑으로 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을 영원히 섬기기 위해 띠를 두르실 것이다. 다스리는 왕이신 그분은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부요케 하기를 기뻐하신다.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눅 12:37)

III. 예수님께서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다

- A.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원하시며, 아버지를 알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서 성육신하신 원대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분은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7-9).

26 내(예수님)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 B.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나타낼 백성들을 원하셨다.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엡 2:4-7)

- C.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성령님께서서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말씀에 따라 보이지 않게 권능을 드러내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사역하지 않으셨으며,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에 의지해서 사역하셨다.
- D.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때까지 자신을 숨기시며, 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자신을 숨기신다. 삼위일체의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으신다. 삼위일체의 위격들은 자신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웅장한 사랑의 신비에서 각자 위격은 자신이 맡은 분량을 베푸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며, 이 성령님은 신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의 위대한 친구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우리를 주신다. 그리고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동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신다.

IV. 예수님을 향한 사랑 : 겸손은 우리의 말을 통해 표현된다

- A. 바울이 빌립보서 2:3-5절을 통해 그들이 겸손 가운데 행할 것을 권면할 때, 바울은 그들이 겸손으로 말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표준새번역 :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2:12-16)

- B.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게 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이해하게 되며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 1:19-21)

- C.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겸손을 가진 우리 성품으로 사랑함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 우리는 사랑을 더욱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대화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동일한 분량을 받을 수 없다(엡 4:29-30; 5:1-6). 우리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을 더 많이 얻게 하기도, 때로는 식어버리게 하기도 한다(엡 4:29-32; 5:1-6).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29-30)

- D. 사랑은 우리의 내적인 자아에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언어로부터 풀어지는 불로 인해 식어지게 된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나 서로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능력을 방해함을 알고, 이를 멈춰야 한다.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약 3:6-8)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 12:34)

V.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겸손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기

- A.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실망감을 이겨내야 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진리를 따라 해석해야 한다. 실망감으로 인한 실족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마비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이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 과거는 우리의 확신에 해를 끼치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에 해악을 끼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 안에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실망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면해야 한다.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1-23)

- B.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권능과 지혜와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신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이것을 간과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분량에 해를 입게 된다.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 31:5)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 12:19)

- C. 우리는 우리가 교만할 수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나은 사역이나 환경을 받을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헌신이 있다면 이를 잊어야 한다. 이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둠의 상태로 죽었던 자들이었다(엡 2:1-1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감사로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합당한 자들인지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그분과 관계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셨다.

7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한글 KJV,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 17:7-10)